

채워지지 않은 5·18 스토리 퀘맬 수 있도록...



독립영화 '벌어진 상처'를 제작하는 백종록 감독

“매년 5월이면 찾아드는 알 수 없는 막연한 부재감의 실체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80년 5월이 아닌 2013년의 5월을 들여다보면서 왜곡되고 공격당하는 5·18 상처에 소금을 뿌려본다고 할까요?”(백종록 감독)

5·18 광주민중항쟁의 뒷이야기를 담은 독립장편영화 '벌어진 상처, 꿰매어진 입술'이 시민들의 후원금을 모아 제작될 예정이다. 제작사인 문화콘텐츠 그룹 '잇다+트다'는

표역의 12%)이 모금됐다. 기간내 목표액이 모이지 않으면 모금 프로젝트는 무산된다.

'텀블벅'을 통해 제작된 영화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은 '지슬'이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지슬'은 제주 출신 오명 감독의 독립영화로, 지난해 7월 '텀블벅 프로젝트'를 통해 1000만원의 예산을 후원받았다.

누리꾼들의 도움으로 완성된 이 영화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넷팩상, 한국영화

리는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주인공의 심리치료극으로, 무대 위에서 자신의 상처를 꺼내놓고 드러냄으로써 5·18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묻는다.

영화는 날카롭고 예민해있는 '모란꽃' 연극 배우들과 이슈 만들기에만 빠져있는 한물간 스타 연출자가 5·18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로 오는 갈등을 담아낼 예정이다. 이들의 인간관계들로 인해 또다른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면서 '작은 5·18'을 재현해가는 과정을 다룬다.

지난 5월29일 광주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에서 진행된 영화 제작발표회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화 시범시사와 후원금 모집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으며, 백종록 감독과 출연 확정된 일부 배우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잇다+트다' 이정훈 대표는 "스토리텔링부터 배우, 프레임 구성구석의 소품, 편집 불하나까지도 광주가 오랜시간 축적해 온 영화의 힘을 담아 만들 계획이다"며 "해마다 5·18 문화예술창작물이 만들어져 왔지만 영화를 통해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5·18 스토리를 꿰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영화는 5월 광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기획단계에서부터 전국에 알리자는 차원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후원금 모집을 하게 됐다"며 "광주에서, 광주 영화인들이, 광주 배우들과 함께 만드는 영화에 광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후원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서 광주 영화인들이 광주 배우들과 함께
백종록 감독 '벌어진 상처, 꿰매어진 입술' 제작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 제작비 일부 500만원 모금



시민 후원금 조달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텀블벅' 모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텀블벅'은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프로젝트에 소액을 기부 후원하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로, 특히 독립적인 문화창작자들의 지원을 목표로 한다.

'잇다+트다'는 11월 영화 개봉을 목표로 지난 5일부터 7월 1일 자정까지 '텀블벅' 사이트 (<https://tumblrbug.com/ko/bubblegun>)를 통해 제작비 중 일부인 500만원을 모금한다.

최소 1000원부터 후원이 가능하며, 2만원 이상 후원자들에게는 금액에 따라 영화 시사회 초대권과 엔딩크레딧에 이름을 올려준다. 16일 현재 17명이 후원에 참여해 64만원(목

감독조합상, 시민 평론가상, CGV 무비콜라주상 등 4개 부문을 휩쓸었으며, 올해 초 세계 최고 독립영화제인 미국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영화 '벌어진 상처'도 지역에서, 지역 감독이, 지역 이야기를 다룬 독립영화라는 점에서 '지슬'과 많이 닮아 있다.

'벌어진 상처'는 백종록 감독의 첫 장편영화다. 오월 광주에 관한 심리치료연극 '모란꽃'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아낸다. 희곡 '모란꽃'은 5·18이



고전회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배준성 개인전, 20일까지 데미화랑

고전회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해온 작가 배준성씨가 오는 20일까지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에 데미화랑에서 개인전을 연다.

그는 전시에서 앵그르, 쿠르베, 벨라스케스 같은 근대 미술 거장들의 원화와 등장하는 인물들의 의상을 새롭게 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원화 속 인물들의 의상을 투명한 비닐필름으로 모사한 뒤 원화와 같은 포즈를 취한 모델의 누드사진에 입히는 작업이다.

작품들은 대부분 '화가의 옷'(The costume of a Painter)을 테마로 만들어졌다. 화가의 옷은 고전회화의 현대적인 차용을 가리키기도 하고 작가가 작품들에 부여한 새로운 의미체계로 해석된다.

이는 새로운 매체나 화면의 구성방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형언어를 만들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이기도 하다. 배씨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했으며 정경자 미술문화재단 창작지원 신인예술가상(1995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2000년)을 수상했다. 문의 070-4388-9505.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여름밤 적실 '거장 쇼스타코비치' 선율

광주시향 19일 공연... 첼리스트 양성원 협연

첼리스트 양성원(연세대 교수)이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를 갖는다.

양씨는 19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거장 쇼스타코비치'에서 그의 '첼로협주곡 1번'을 연주한다. 쇼스타코비치가 자신의 제자이자 첼리스트인 로스트로포비치에게 헌정한 '첼로협주곡 1번'은 1959년 브라빈스키의 지휘로 레닌그라드에서 초연됐었다. 영국 런던의 로얄 아카데미 오브 뮤직 초빙교수로도 재직중인 양씨는 최근 여수 등에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전국 연주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객원지휘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로 활동하는 폴 폴리브닉이 맡았다. 미국 뉴햄프셔 뮤직 페스티벌 음악감독, 오버린 콘서바토리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활동했던 그는 지난 2008년에도 광주시향과 함께 공연한 적이 있다.

이번 공연의 연주 레퍼토리는 러시아의 대표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으로만 꾸며졌다. 첫번째 곡은 다양한 관악기와 타악기의 매력을 맛볼 수 있는 '축제 서곡 작품 96'이다.

피날레곡은 '교향곡 10번'이다. 2악장은 '스탈린의 음악적 초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티켓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62-613-82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양성원



폴리브닉

서영무용단 '작침' 광주무용제 대상

9월 전국무용제 광주 대표 출전

서영무용단의 '작침(鵲舄)'이 제22회 광주무용제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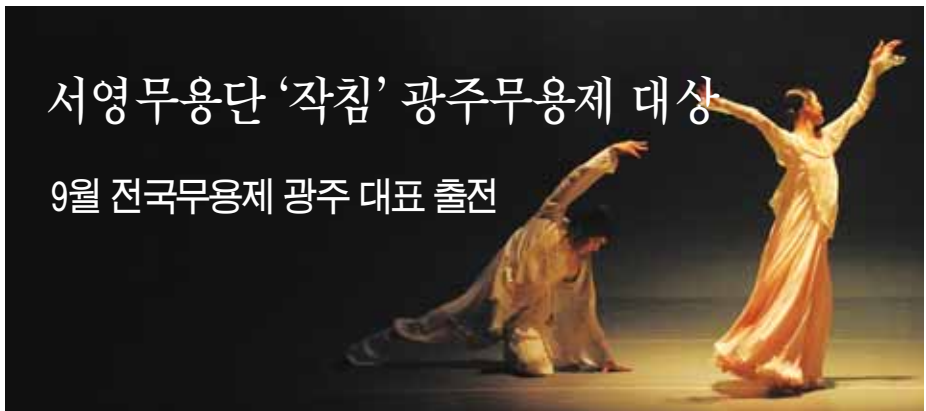
광주무용협회(회장 김미숙) 주최로 지난 15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작침'은 대상과 함께 연기상(손은혜·조선대 무용과)도 함께 받았다.

서영무용단은 오는 9월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순천에서 열리는 제22회 전국무용제에 광주 대표로 출전, 14개 시도 대표팀과 경연을 벌이게 된다.

작품 제목 '작침'은 까치가 동지를 틀 때 풀이나 나뭇가지 사이에 집어넣는 작은 돌맹이로 흔히 '까치베개'로 불린다.

작품은 '술'과 '사람'을 큰 테마로 두고, 각각의 개념과 의미를 다양한 색감과 질감으로 표현했다. 또 간결한 무대 디자인을 통해 대체로운 감정을 극대화시켜 서정적인 춤사위로 풀어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로 전남대 등에 출강하고 있는 서영 단장이 안무를 맡았다.

'작침'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흔돈, 따뜻한, 치유 등 다양한 삶의 감정을 차곡차곡 쌓은 작품으로 무용수들의 기량과 표현력, 작품의 형식과 구성이 조화를 이뤘다"는 평을 받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내일 하정웅씨 초청 강연

광주시립미술관은 18일 오후 2시 지난 20여년 동안 국내외 미술관과 박물관에 1만여점의 미술작품과 자료를 기증한 제일교포 하정웅(사진)씨를 초청, 강연회를 연다.

'전국시도립미술관네트워크 하정웅컬렉션 특선전' 부대행사로 '컬렉터 하정웅의 삶과 기도'를 주제로 진행된다.

하씨는 역경을 이겨내고 사업가로 성공하기까지 과정, 미술작품 수집을 하게 된 배경과 작가들과 에피소드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다음달 2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된다. 문의 062-613-7142.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
고품격 웨딩의 메카 **신양파크호텔!!**

Shin Yang Cool Wedding

그 누구보다 특별한 당신, 영원히 기억될 웨딩을 위한 완벽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특별할인

7~8월 웨딩 확정시 | 뷔 페 ₩ 33,000 ~
스테이크 ₩ 38,500 ~

"단 한번의 웨딩은 평생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신양 헤니문 카드 특전 -

- 객실이용시 40% DC (금토공휴일 전날 30% DC)
- 연회 및 레스토랑 이용시 10% DC · 직계 가족 웨딩 시 10% DC
- 결혼기념일 당 호텔 방문 시 케이크 무료제공 및 레스토랑 이용시 50% DC
- 휘트니스 사우나 이용시 40% DC · 제과 전품목 20% DC

Shin Yang Park Hotel

예약문의 062)221-4101~3